

“최고 기술력·안전성…소형 전기차 돌풍 일으킨다”

GGM ‘캐스퍼EV’ 생산라인 가보니

지난달 양산 돌입… 가동률 100% 쾌적한 업무환경 속 생산 ‘구슬땀’을 하반기 2만3천여대 목표 ‘순항’ 해외서도 관심 9월부터 본격 수출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광주산 캐스퍼 일렉트릭(EV)이 지난달 15일 본격 양산에 돌입한 후 한달여가 지났다. 양산 9일 만에 전기차 가동률 100%를 달성, 현재 안정적으로 생산 중이다.

13일 오전 10시30분께 폭염특보 속 방문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이곳 18만여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차체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 3개의 공장이 캐스퍼·캐스퍼EV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차게 가동 중이다. 이날 방문한 곳은 조립공장으로 완성된 캐스퍼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었다.

공장 입구에는 버터크림 옐로우 색의 1호 전기차량이 전시돼 있었는데 크기는 더 커졌지만 기존 캐스퍼의 귀여운 매력은 그대로였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버터크림 옐로우 색상은 독특할 것이라 우려와 달리 차분한 노란빛을 뽐냈다. 내·외부도 달라졌는데 앞좌석 레그룸의 경우 성인 남성이 다리를 쭉 폼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넓었다. 큰 크기의 배터리는 하부에 배치해 뒷좌석 공간도 소형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여



13일 찾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윤몽현 대표이사가 ‘캐스퍼EV’를 설명하고 있다.

유로웠다.

조립공장 내부는 자동차 공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다. 전체 650여명 중 대다수의 직원이 이곳 조립공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공장 내부 온도가 26도로 유지되는 등 쾌적한 업무 환경을 보였다. 올 하반기 캐스퍼EV 생산 목표가 당초 1만7400대에서 40% 증가한 2만3000대로 예정되면서 직원들은 주말 특근을 하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기간 기술인·전기차를 혼류생산했으나 캐스퍼EV의 인기에 이날부터 전기차 100% 생산에 들어갔다.

조립공장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430억원이며 이중 34억원이 배터

리 공정에 들어갔다. 캐스퍼EV에는 현대차와 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NCM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무게 320kg으로 동급 차종 배터리보다 큰 편이다. 이에 항속거리가 315km로 동급 최장이며, 수출용 유럽 모델의 경우 350km로 폭스바겐 등 수입차량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GGM은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캐스퍼EV에 고급차 수준 기능을 도입했다. 캐스퍼EV는 90%, 80% 등 충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전기차 완충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2년간 30만km를 주행하는 등 가혹 조건을 테스트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퍼EV 본격 양산에 맞춰 한시적으로 기아차의 숙련공들이 출고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도 적용됐다. 운전자가 0.25초 안에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으면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해 차량이 자동으로 멈춘다. 시범적 도입으로 앞으로 전자식 페달 차량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완성차 공정의 마지막 출고 전 정밀검사 구역에서는 직원 평균나이 30세인 GGM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년층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이들은 기아차의 숙련공들로 전기차 본격 양산에 맞춰 꼼꼼한 검사를 위해 고용됐다.

캐스퍼EV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뿐 아

니라 해외에서도 높다. 당초 유럽 등지의 수출은 오는 10월 중 예상됐으나 해외 딜러들의 요구로 한달 빠른 9월 말부터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 일본 수출은 내년 2월에 예정돼 있으며 오른쪽 핸들 차량도 양산 중으로 영국, 호주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이번 캐스퍼EV 전기차 생산으로 일감 증가로 인한 임금, 복지 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물량이 증가해 현재 1교대 체제를 2교대 체제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본사 직원 1000명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트렉 바이시클(Trek Bicycle)’과 함께 사이클 운동에 최적화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체험할 수 있는 ‘울트라 라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트렉 바이시클과 ‘울트라 라이딩 챌린지’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전거 브랜드 ‘트렉 바이시클(Trek Bicycle)’과 함께 사이클(Cycle) 운동에 최적화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체험할 수 있는 ‘울트라 라이딩 챌린지’를 13일부터 9월13일까지 진행한다

‘울트라 라이딩 챌린지’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하고 트렉 바이시클의 최신 에어로 로드 자전거인 ‘마돈 8세대’를 실내에서 시승할 수 있는 행사로, 전국 18개 트렉 바이시클 직영점에서 별도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참여자들은 사이클에 특화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다양한 AI 운동 코칭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하고 약 4분 정도 사이클링을 하면, 1시간 정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운동 평균 강도 지표인 ‘FTP (Functional Threshold Power)’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심폐 능력을 분석해 최적화된 운동 강도를 제안하는 ‘개인 맞춤형 심박수 구간(Personalized HR Zone)’ 기능도 체험 가능하며, 운동 기록·에너지 점수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제공되는 효율적인 운동 팁도 제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챌린지 참여 후 SNS에 참여 후기를 남기는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선착순 600명에게 ‘갤럭시 워치 5만원 할인 쿠폰’과 ‘트렉 바이시클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7명에게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제공한다.

박소영 기자

현대차, 국내 최초 ‘전자종이 비콘 출입증’ 개발

반영구 재사용·플라스틱 사용 감축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자종이(E-paper) 비콘(Beacon) 출입증을 도입해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한다.

현대차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RF(Radio Frequency) 카드 대신 전자잉크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출입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종이 비콘 출입증은 LCD 디스플레이에 전자잉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현대차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RF카드 대신 전자잉크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출입증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현대차 제공

자원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전자종이 비콘 출입증은 방문객의 소속

과 성명, 사진 등 인적정보를 LCD 디스플레이에 표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육안으로 신원 대조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객이 비인가구역에 출입하면 자체 경보음이 울리면서 LCD 디스플레이 색상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관제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보안관리를 할 수 있다.

출입증 후면부에는 SOS 구조요청 버튼이 있어 혹시 모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번 전자종이 비콘 출입증 도입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일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롯데마트, ‘광복절 황금연휴 통큰딜’ 행사

15~18일 최대 반값 할인

롯데마트는 광복절 징검다리 휴일이 시작되는 15일부터 18일까지 ‘황금연휴 통큰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선 식품 상품군에서는 호주청정우를 원재료로 활용한 ‘산더미 대과 소불고기(800g/냉장)’를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50% 할인해 1만2900원대에, 2봉 묶음 상품으로 가성비비를 더한 ‘번들 새우살 3종(각 250g·2입/냉동)’을 40% 저렴한 각 1만1800원대에 판매한다. ‘제주

황도밭 하우스감귤(1kg/팩/국산)’과 ‘행복생생란 30구(대란/국산)’도 각 9900원대, 4900원대에 특가 판매한다.

또 ‘동원/오투기/풀무원/하림 상은 국물요리 전품목’을 비롯해 ‘CJ 동치미 물냉면(2인)’와 ‘CJ 비비고 납작교자/바삭 통등심돈까스’, ‘하인즈 케첩/마요네즈 7종’, ‘고추장/된장/쌈장 43종’ 등 집밥과 나들이 고객을 위한 가공 먹거리 1+1 행사도 준비했다. 17일에는 ‘봉지라면 전품목’ 2+1 행사를, 17일과 18일 양일간은 ‘브레프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15일부터 21일까지 론칭 2주년을 맞이하는 ‘마블나인’을 통큰 할인가로 선보인다. 마블나인은 근대지방도(BMS) 9등급의 최상급 한우만을 선보이는 롯데마트의 시그니처 한우 브랜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마블나인 전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L.POINT) 회원 40% 할인 혜택과 더불어 행사카드(롯데/신한/NH농협) 결제 시 1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 정상 판매가와 비교해 절반 가격 수준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마블나인 등심(1++(9)등급/냉장/국내산 한우)’는 최종 혜택가 9400원대에, ‘마블나인 국거리/불고기(1++(9)등급/냉장/국내산 한우)’는 각 4800원대에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